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급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넙을수록 청산이요, 건넌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둘러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혹좌혹립(或坐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 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러서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러서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결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의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군.
- ②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군.
- ③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 ④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군.
- ⑤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군.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⑤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 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옵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옵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덕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怯)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놓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坐起)하옵시고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怯)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역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덕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덕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

그 머리를 안고 시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

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 자부: 며느리.

* 존구: 시아버지를 높이는 말.

(나)

[앞부분 줄거리] 명성이 높은 진사 소옹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저는 본디 모씨 덕의 종이였습니다. 마침 주인덕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로 특히 소저의 소꿉 시중을 듣게 하였고, 장래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아홉 살 적에 주인덕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소저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소저는 십 세를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지요. 이 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오 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도회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여러 천 냥의 돈을 벌어서 보검 네 자루를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번득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부모의 산소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남장으로 팔년간 천 리를 횡행하였으니, 비록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자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요,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또한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역지로라도 가까이 댈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 줄 분인들 어디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검을 팔아서 나를 이곳에 물어 다오. 죽은 몸이나마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 기사(奇士)*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결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중략)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삼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학·산학 및 사주·점·부적·도참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 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에 은거**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고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 부류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저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렵니다. **면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가뿐히 차려입고 나설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리까?

- 안석경, 「검녀」 -

* 기사: 기이한 선비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7.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부'는 '노파'를 위로하는 척하며 궁금한 사실을 물었다.
- ②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 ③ '김씨'는 혼인한 날 밤에 자객에 의해 '신랑'을 잃었다.
- ④ '장 시랑'은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다.
- ⑤ '친정 부모'는 '딸'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원통하게 여기는 한편으로 기뻐하였다.

8.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성취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③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

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위기에 처한 '소저'와 '저'가 몸을 숨긴 곳이다.
- ② ㉡: '소저'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저'와 함께 찾아간 곳이다.
- ③ ㉢: '소저'가 자신이 한 일을 죽은 부모에게 고한 곳이다.
- ④ ㉣: '저'가 '선생'과 함께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는 곳이다.
- ⑤ ㉤: '저'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려는 곳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씨열행록」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며, 「검녀」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 ① (가)의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댁을 찾아가'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김씨'가 '곳간 문을 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저'가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것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산림에 은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것과 (나)의 '저'가 '남장을 하고' '칼 쓰는 법을 익혔'다는 것에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앞부분 줄거리] 일자무식에 머슴살이 하던 민시영은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다. 북한산에 사는 월봉대사는 민시영의 사연을 듣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 받아 그를 가르치게 된다.

이 이후로부터 문밖을 나서지 아니하고 오륙 년을 공부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선비가 되었다.

생이 하루는 여쭙었다.

“공부가 점점 안정(眼睛)*에 열리되 이목(耳目)에 한 번도 시험치 못하였으니 일시(一時) 과장(科場)을 구경하고 싶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아직 말라. 네 마땅히 과거 시험 할 날이 있으니 그리 알라.” 하시니 차후로 다시 청치 못하고 또 수년을 보내니 문사(文辭)가 자못 뛰어나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일일은 대사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정시(庭試)를 보고자 하는가?”

생이 말하였다.

“진실로 원하는 바이로되 과장의 기구가 없사오니 어찌 하리까?”

대사가 말하기를,

“네 무슨 근심이 있나뇨? 내 이미 장치(裝置)하였노라.”

하고 인하여 폐글제를 써주되 ‘한군신(漢君臣)이 하득제갈량(何得諸葛亮)이라.’하고 써주며 스스로 한 수(首)를 짓고 또 생으로 하여금 지으라 하시며 말하기를,

“장중(場中)에 들어가 만약 네 이런 글제를 보거든 두 수(首)중에 네 소원대로 써 바치라.”

하고 이미 장치하였던 필묵을 내어주며 읍(揖)을 맞아 보내며 당부하였다.

“만약 천은(天恩)을 입어 폐하를 보면 응당 묻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내게 와 고하던 대로 조금도 숨기지 말고 고하되 조심하고 조심하라.”

생이 재배(再拜)하고 말하였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하직하고 떠나 장중에 들어가니 대포 소리 한 번 울리며 글제를 판상에 내어 걸거늘 쳐다보니 선생의 가르치던 글제와 같은 지라.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여 말하였다.

‘선생의 명령이로다.’

그제야 선생이 지어주신 한 수를 써 문하(門下) 중에 던졌다. 조금 있다 우레같은 소리 일장(一場) 중에 시끄러워 놀라 들으니 민시영 성명 석 자를 과장에 두루 다니며 외치는 소리였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민생이 생각하였다.

‘선생이 나를 보내실 제 이름은 시영이라 하고 자는 공화라 하옵기로 이로써 봉내(封內)에 넣었더니 진실로 나 아닌가?’

주저하고 바랄 제 호명하는 자가 모습을 살펴 그가 민시영인 줄을 알고 말하였다.

“그대가 민시영이 아닌가?”

곧 앞서 이끌며 몰아내자 따라 들어가 전정(殿庭)에 숙배하니 임금이 물으시기를,

“선조는 누구고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生長苦樂)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 하였다. 생이 감히 사정을 숨기지 못하여 하나같이 대사가 가르치던 대로 전후의 수말(首末)을 낱낱이 대사의 앞과 같이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내 어젯밤 몽중(夢中)에 어떠한 도사 한 분과 와 날더러 이르기를 ‘폐글제는 이러한 글제를 내라.’ 하되 그 연고를 해득치를 못하였더니 이제야 그 부인의 지성을

상제(上帝)께옵서 감응하시어 내 마음을 깨치게 함이라.

[A] 또 몽중 도사는 너의 선생 월봉대사요, 글제의 ‘하득제갈량이라.’하는 것은 내 시영을 얻을 징조로다. 오호라,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요, 국난(國難)에 사양상(思良相)이라*.’ 하였으니 내 나라가 어려움을 근심함에 또한 양상을 얻었고 네 가빈하니 또 양처를 얻었도다. 나를 도와 감히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니 장차 반드시 너를 기다려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로서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겠노라.”

(중략)

소비가 말하였다.

“아까 일각문 밖의 어깨춤 추던 걸인을 몰아내었더니 곧 서당에 들어가 도련님을 무릎 위에 앉히고 ‘나는 네 아버요, 너는 내 아들이라.’하니 이것이 무슨 변괴리오?”

발을 구르고 실색하니 부인 역시 크게 놀라 급히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 허허 길게 탄식하고 돌아 들어와 이불을 덮어쓰고 스스로 하는 말이,

“집 떠난 지 구 년 만에 굶주림과 추위가 자못 심하여 떠돌아 다니다가 고향 생각 간절하여 돌아온 것이 괴이하다. 대장부가 아녀자와 더불어 십 년의 기약을 서로 하였는데 저다지 신의 없이 돌아오니 어찌 그러리오? 비록 그러하나 잠깐 용모를 살펴보니 티끌의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으니 의관은 남루하나 완연히 진흙 속의 옥이 티끌 밖에 드러나 있도다. 반드시 무슨 거동이 있을 것이다. 손질을 살펴보니 품되고 걸식하던 모습도 아니도다. 기약을 어겨서 혼연히 받아들이면 이는 반도지폐(半途之廢)*가 될 것이니 물리쳐 나중의 모습을 보리라. 고인이 이르기를, 옛날 소진(小進)이도 그 아내에게 곤박함을 보고 스스로 공부한 지 삼 년 후에 육국(六國) 상인(相印)*을 차고 다시 만났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리라.”

이를 같고 앉았으니 조금 있다가 아이 들어와 부인에게 고하였다.

“아버지 밖에 와서 안으로 들어올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모친 앞에 고하라 하더이다.”

부인이 듣고 말하였다.

[B] “이 어찌한 말이며, 이 어찌한 말이고? 네 아비 생별할 때에 정연(定然)이 언약하기를 한 십 년 기약하되 만일 기약 전에 돌아오면 비록 구 년 선달 이십구 일이라도 맹세코 서로 아니 볼 양으로 서로 약속하였으니, 부군이 어찌 기약을 어기어 돌아올 이치 있으랴? 설사 참으로 네 부친이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아니 할 것이니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라. 혹 중간 무뢰배가 네 아비와 동무함에 정담(情談)의 말을 듣고 간사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지었은 것이니 신속히 쫓아내라.”

- 작자 미상, 「민시영전」 -

* 안정 : 눈동자. 여기서는 학문에 대한 안목을 가리킴.

* 가빈에 사현처요, 국난에 사양상이라 : 집안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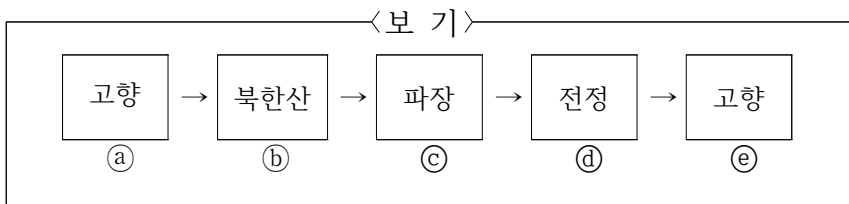
* 반도지폐 : 일을 중간에서 그만 둠.

* 상인 : 재상의 도장.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시영은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 ② 월봉대사는 과거 시험에서 사용할 필목을 준비하지 못한 민시영을 꾸짖었다.
- ③ 임금은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 ④ 걸인의 정체를 눈치 챈 소비는 그를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 ⑤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있는 걸인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보았다.

12.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공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시영이 a를 떠난 사연은 b에서 월봉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민시영이 c에서 겪은 일은 b에서 월봉대사가 의도한 대로 전개된 것이다.
- ③ d에서 임금이 한 말을 통해 c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 ④ d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명에 따라 민시영은 아름다운 의관을 갖추어 e로 돌아온 것이다.
- ⑤ e에서 부인이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민시영이 a에서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민시영전」은 영웅소설의 계열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이 작품에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민시영이라는 평범한 인물이 아내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하는 성공담을 담고 있다. 이때 주인공인 민시영보다 더 부각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아내이다. 우부(愚夫)인 민시영의 성공은 무엇보다 아내의 정성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① 임금이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 않은 민시영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인이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영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정해진 기한만큼 남편을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월봉대사가 민시영에게 제시한 글제와 임금에게 제시한 글제가 동일한 것을 보니, 민시영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이 민시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양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의 삶이 변화하는 데 아내의 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1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B]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맡은 일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가)

[앞부분 줄거리] 윤선옥은 박 소저와 혼례를 올린다. 전란으로 선옥은 첫날밤에 박 소저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달빛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사는 두견이는 슬피 울고, 이 산 저 산에 잔나비 슬피 울었다. 새소리가 등등하고, 물소리가 와글와글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층암절벽에 높이 올라가 삼경 사경 깊은 밤에 어디를 향할 것인가? ㉠부모님과 남자가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니, 풀과 나무도 슬피하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엄기엄 올라가는데, 미풍이 한차례 부는 가운데 경쇠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종소리를 따라 점점 올라가니, 상상봉 높은 곳에 단청이 고와 아름다운 누각이 공중에 솟아 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점점 들어갔다. 들어가니 적적한 공당(空堂)에 인적이 없었다. 두루 배회하다가 현관을 살펴보니, 황금자로 ‘운산각이라’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 앉았는데, ㉡‘합경도 종성 춘산동의 도참관의 보상 아들 삼국도원수 인국대승상 윤선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선옥이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방황하다가 한쪽으로 들어가니 벽에 금자로 썼기를, ‘종성의 윤선옥은 이 집의 왼편 층암절벽 위로 올라가면 불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옥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분명히 산신령이 인도함이구나.’

하고 왼편으로 가 보니 과연 층암절벽이 천 장 만 장 높이로 솟아 있었다. 선옥이 바위를 움켜잡고 절벽 위로 올라가니, 심회가 위태롭고 두려웠다. 겨우겨우 올라 가장 높은 봉우리에다 다르니 층암절벽 위에 한 칸 초가집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떠한 노인이 청삼을 입고 운관을 쓰고 왼손에는 청룡검을, 오른손에는 백옥선(白玉扇)을 들고 앉아 있으므로 선옥이 황공하여 문밖에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운데 난을 피하여 오다가 제분수에 지나치게 선정에 들어왔으니 죄가 무거워서 죽어도안타깝지 아니 하오이다.”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천상의 북두칠성으로서 옥황상제께 죄를 입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노라. 어젯밤에 남악 산신령이 나에게 편지를 하기를, 종성의 윤선옥이 천상 세계의 태생으로 내일이면 올 것이니 안존(安存)하게 하라고 하기에 그대 윤선옥인 줄 알았노라. 그때 천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눈 아래로 보더니 이제 도리어 나에게 몸을 굽혀 공손하니 이것이 이른바 반복지사(反復之事)로구나.”

하고 선옥을 불러들이므로 선옥이 일어나 공경하게 두 번 절하고 앉은 후에 세상의 일을 말하였다.

노인이 말하였다.

“세상이 시끄럽지만 오래지 않아 난이 평정될 것이다. 그대는 재주가 비범하고 모든 일이 민첩한 듯한데 신기 묘수를 다 아느냐?”

선옥이 말하였다.

“소자는 본디 총명하지 못하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 신기 묘수를 알겠습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처하여 영웅과 장상(將相)의 재주를 모르면 별기*라. 잘은 모르지만 그대는 내실이 있을 것이니 약간만 신기 묘수를 배우라.”

하고 즉시 서안을 열어 한 전책을 내어 주면서,

“이 책은 육경 육갑을 익혀 풍운조화를 부릴 수 있는 천만병서라네.”

라고 하니,

선옥이 받아 두어 번 읽고 육경 육갑을 외우고 둔갑술로 몸을 숨김과 풍운조화를 부림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였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윤 진주는 진실로 만고의 제일가는 영웅이로다!”

- 작자 미상, 「윤선옥전」 -

* 별기 : 따로 갈라진 길. 여기서는 대장부라도 장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앞부분의 줄거리] 원강아미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인 사라도령과 헤어져 천년장자의 종이 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떠나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할락궁이의 행방을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원강아미는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세 번 다짐한다. 이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아이가 할락궁이를 데리고 꽃감관한테로 가자 꽃감관이 말했다.

“여봐라. 너 어떠한 아이가 되느냐? 친가는 어디고 외가는 어디냐?”

“㉣ 우리 조부는 짐정 나라 짐정국이고 외조부는 임정 나라 임정국이며 우리 아버지는 저승의 서천꽃밭 꽃감관 사라도령입니다. 어머니는 임정국 원강아미인데 천년장자 집의 원강덕이가 됩니다. 나는 신산만산 할락궁이입니다. 부친을 찾아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너한테 증표가 있느냐?”

할락궁이가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을 꺼내어서 꽃감관이 가진 것과 맞춰 보니 바짝 붙어서 딱 맞았다.

“네가 내 자식이 분명하다.”

하인 하님을 부르면서,

“여봐라. 내 자식이 왔으니 나 먹듯이 밥상을 차려 와라.”

“아버님아 아버님아. 밥상을 차려 온들 내가 아버지 무릎에 한번 앉아 보지도 못했는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무릎에 앉아 보아라.”

㉤할락궁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오줌 누는 모양 똥 누는 모양 갖은 어리광을 다 해 두고서 밥상을 받을 적에 사라도령이 물었다.

“네가 이리 올 적에 웬 물이 발등에 뜨지 않더냐?”

“뻗습니다.”

“그게 네 어머니 첫 다짐 받던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뽀얀 물이 무릎에 뜨지 않더냐?”

“뻗습니다.”

“그건 재다짐 받을 적에 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노란 물이 자개미*에 뜨지 않더냐?”

“뻗습니다.”

“그건 너의 어머니 삼 다짐 받으며 흘린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빨간 물이 잔등에 뜨지 않더냐?”

“뻗습니다.”

“그것은 네 어머니 죽을 때 흐른 피로다.”

(중략)

사라도령이 또 말했다.

“지금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뼈만 앙상하다. 가서 너의 어머니 뼈를 찾아와라.”

아들 할락궁이를 데리고 서천꽃밭 꽃구경을 시켜 주면서, “이건 뻗오를꽃이고 이건 살오를꽃이며 이건 오장육부간담만 들꽃이다. 이건 웃음웃을꽃이고 이건 말가를꽃이며 이건 시들꽃이고 이건 생불꽃이다. 이건 불불을꽃이고 이건 멸망꽃이며 이건 악심꽃이다.”

[A]

[B]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왓,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왓,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네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너무 으리 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옥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체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 이더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월궁향아의 행차러라. 향아가 숙향을 보고 왓,

“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거늘, 숙향이 향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향아가 옥황께 여쭙오되,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서 복록*을 정하소서.”

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왓, “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

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畫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왓,

“북쪽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 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은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이선 왓, “너무 으리 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왓,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하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일네라.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을 하고 모든 선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상제 전교*하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그 소리에 놀라 꺾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복록 : 복되고 영화로운 삶.

* 전교 : 임금의 명령을 내림.

19.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 ②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 ③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 ④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 ⑤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②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 ③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숙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숙향에게 미리 알려 주고 있다.
- ⑤ 숙향이 태을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 ② ㉡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③ ㉢은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 ④ ㉠, ㉡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 ⑤ ㉡, ㉢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2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와 (나)를 감상하는 활동을 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①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 ②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에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 ③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 ⑤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진사는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경성 남산 밑과 연접한 곳에 한 채의 작은 초가에 거처하였다. 낮이면 남산에 밭 갈기하고 밤이면 고인의 글을 상고하고 한가할 때는 한강에 고기를 낚아 노모에게 지극히 봉양하고, 심씨는 한결같이 품팔이로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봉양하더니, 금년 같이 특별한 해에 궁춘(窮春)하여 월초에 팔십 노모 우연히 병을 얻어 진사가 천 가지 만 가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빌면서 노모 환후 쾌히 회복하시기를 발원하고, 부인은 좋은 약을 구해 시중을 들면서 회춘(回春)하시기를 하늘에 빌어 본들 하늘에 매겨진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불과 오륙칠 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진사는 머리맡에 앉아 통곡하고 심씨는 발치에서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하였다. 어느 노비가 있어서 죽반을 권하며 어느 일가친척이 있어서 초종례(初終禮)를 염려해 주겠는가.

불과 삼일에 이르러 힘이 다하여 곡성도 내지 못하고 힘이 다하여 부부 엎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부친이 이르되,

“너희들이 이러하다가 노모의 초상을 잘 치르지 못하면 불효를 면치 못하리라. 그리 말고 집안을 뒤져 보면 두 홉 양식이 있을 것이니, 죽이나 끓여 먹고 자학동 오흥 대감 댁을 찾아가면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시거늘,

진사 놀라 깨어 부인을 깨워 **몽사(夢事)**를 이야기하니, 부부의 꿈이 똑 같았다.

일어나 부엌에 가서 뒤져 보니 과연 두 홉이 있거늘, 갱죽을 끓여 먹고 진사가 부인에게 하는 말씀이,

“부인은 어머님 신체를 모시고 몸을 보전하소서. 몽사가 비록 허사이기는 하나, 이 죄인은 자학동으로 가 보리다. 만일 일가친척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의 일신을 팔아서라도 **초종례**는 마쳐야 아니 하겠소.”

심씨 대답하기를,

“첩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사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대 심 상서의 옛 따님이요 현재의 **전라 감사의 귀한 여식**으로서, 어찌 남의 집 **방비(房婢)**가 되려 하십니까. 죄인이 혼자 가겠습니다.”

심씨가 대답하기를,

“해 가는 데 달이 가고 **부창부수(夫唱婦隨)**는 삼종(三從)의 떳떳한 바입니다. 임금이 욱되면 신하가 죽고 가장이 곤욕을 당하면 그 아내인들 곤욕을 면하리오. 부부는 한 몸이니 첩도 기어코 한가지로 하겠나이다.”

심씨가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섰다. 진사가 마지못하여 밖에 나와 방문을 잠그고 부부 손을 이끌고 자학동을 찾아가니, 문밖에 수문(守門) 군사 많이 있었다.

군사를 대하여 말하기를,

“이 댁이 오흥 대감 댁입니까?”

군사가

“그렇다.”

고 하니,

“잠깐 대감을 뵈옵고 **신원(伸冤)**할 말씀이 있사오니 통지하옵소서.”

한 군사 통지하여 들라 하거늘, 진사 들어가 뜰아래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렸다. 대감이 보시더니,

“너는 어느 뉘 댁 비복이냐?”

진사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A] “소인은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는 구대 진사 댁 비복이온데, 진사님 금년 같은 별연 궁춘에 팔십 노모님 초상을 당하시어, 미처 **염습계구(殮襲 난구)**를 준비하지 못하시어

소인 내외를 팔려고 하여 저희들이 왔나이다.”

대감이 본래 적선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너희 둘을 팔려고 한다면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

진사가 말하기를,

“오십 냥이면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대감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충노충비(忠奴忠婢)**로구나.”

하시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 상전의 **초종(初終) 양례(兩禮)**까지 치른 후에 와서 드난하라.”

하시었다.

[중략 줄거리] 진사는 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치르러 떠나고 부인은 대감의 집에 남아 노비로 지내며 고초를 겪다가 두 사람의 본래 신분이 밝혀진다.

대감은 그 길로 탐전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소신이 천한 나이를 먹어서 조정에도 응당 추잡한 일만 할 것이니, 신은 집으로 물러가오리다.”

전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옥루(玉淚)**를 흘리시고 가라사대,

“경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어서 **거짓 칭탈(稱頌)**을 하는고?”

하시니 대감이 다시 아뢰어 가로되,

“신이 어두워 전라도 남원에 거한 구대 진사 이태경을 몰라보고 천사(賤事)의 **노복**으로 몇 달 부렸사오니, 신의 **죄**를 조정에 전하시어 **국법을** 바르게 하옵소서.”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을 짐이 전혀 모르겠구나.”

하시매 대감이 다시 아뢰기를,

[B] “다름이 아니오라 태경이 금년의 별연 궁춘에 팔십 노모에 초상을 당하여 염습계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저의 내외에게 팔려온 것을, 신이 아득히 몰라보고 몇 달 부렸사옵니다. 신의 죄가 이만저만 아니오니, 이에 상달하나이다.”

전하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말씀하시기를,

“태경의 효성은 짐도 몰랐거든 경이 어찌 알리오. 짐이 구중 궁궐에 깊이 처하여 민간의 적자와 백성이 이같이 빈곤에 빠져 있어도 아득히 몰랐으니, 이는 경의 죄도 아니요 태경의 죄도 아니요, 이는 짐의 죄로다. 수원수구(誰怨誰咎)하리오.” 하시었다.

상이 친히 황금 일천 량과 백금 일천 향과 향촉 이백 병과 백지 오백 동을 하사하시고 조상 부의금도 하사하시었다.

- 작자 미상, 「이태경전」 -

2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상투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4. 몽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을 꾸 주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꿈을 꾸 주체들에게 출생 내력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꿈을 꾸 주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꿈을 꾸 주체들에게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꿈을 꾸 주체들에게 서로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를 제시하고 있다.

25.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고 있고, [B]는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를 칭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상대를 격려하고 있고, [B]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고, [B]는 상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실망감을 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고, [B]는 상대에게 원망을 전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⑤ [A]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고, [B]는 상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2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와 (나)를 감상하는 활동을 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태경전」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유교 사상은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서로 다른 신분의 상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로 구체화되었다.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로 유교적 질서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는 모습을 통해 유교적 질서가 당대의 이상적인 지배 질서였음이 드러난다.

- ① 진사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돈이 없어 ‘초종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보니, 궁핍으로 인해 부모 자식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심씨가 ‘전라 감사의 귀한 여식’임에도 ‘방비’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본래 신분과 다른 신분이 되려 했던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씨가 ‘부창부수’를 근거로 진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서는 것을 보니,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군.
- ④ 임금이 ‘옥루’를 흘리며 대감에게 ‘거짓 칭탈’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을 보니, 군신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신하가 군왕에 대한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을 알 수 있군.
- ⑤ 대감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겨 ‘국법’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신분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앞부분의 줄거리] 원수는 서번과 서달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돌아가던 중 단원사에서 모친과 경패 낭자를 상봉한다.

서로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모친을 모시고 중당에 좌정하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때 부인 양 씨가 장도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A] “내가 부친과 너를 생각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여인이 절에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그 모습과 사정이 나와 비슷하였기에 머리를 깎고 나와 스승과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후원에서 애절하고 원망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나기에 위로하러 갔더니, 옷을 만지면서 슬퍼하고 있더구나.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낭군의 신포라 하기에 더욱 보자고 하여 받아 보았더니 나의 솜씨였고 너의 옷이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으로 믿을 만한 표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네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적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옷깃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이것을 믿을 만한 표식으로 여겨 사오 년을 서로 아껴 주고 위로해 주며 지냈느니라.”

[B] 이것을 듣고 원수가 모친께 아뢰었다. “소자도 그때 도적이 데리고 가다가 중도에서 버렸기에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낭자의 부친이 데려다가 사랑하고 아껴 주시고 낭자와 백 년의 가연을 정해 주었습니다. 또 통관이 계시하신 대로 호 씨의 구박을 견디다가 결국 낭자와 이별하고 동서로 결식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천행으로 서주의 왕 상서 댁에 의탁하여 왕 상서의 사환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천행으로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어 서주에 내려가 왕 상서의 여식과 혼인한 이야기와 황성에 올라가 원천의 딸을 후궁으로 삼은 이야기를 부인과 낭자에게 말씀 드리니 ㉔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였다.

[C] 원수가 다시 아뢰었다. “천자께서 명하시어 소자를 불러 이르시기를, ‘서번과 서달이 삼십육도 군장과 도모하여 대국을 침범하였노라. 너를 대사마 대원수로 삼으니, 이 사인검을 가지고 정병 팔십만을 조발하여 번국을 소멸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에 소자가 한 번 전장에 나아가 서번과 서달, 삼십육도 군장을 모두 소멸하여 천운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 돌아오다 서천관에 이르러 유숙하고 있을 때, 금산사 화주승이라 하는 노승이 꿈에 나타나 여남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남에 이르렀는데 또 그 도사가 꿈에 나타나 단원사를 찾아가면 절로 부모와 낭자를 만날 것이라 하기에 이리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니, ㉕부인과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도사의 신기함에 감복하였다.

(중략)

원수는 행군의 여정이 피곤하여 잠깐 졸았는데, 전날 밤중 꿈속에 나타났던 도사가 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수는 부친을 눈앞에 두고 어찌 잠만 깊이 자십니까?” 그러고는 문득 사람이 보이지 않거늘, 깨어 보니 남가일몽이었다. ㉖마음이 뒤숭숭하였으나 도사의 영감과 신기함은 탄복할 만하였기에, ‘도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부친을 찾을까 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 각 도와 각 읍의 자사와 수령을 모두 청하였다.

자리를 정하고 즐기며 차례로 술잔을 권했는데, 부남은 남방의 대관이었기에 부남 태수가 오른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잔이 두세 번 돌아간 뒤에 부남 태수가 눈을 들어 원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즐거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고 있던 ㉗장도를 만지면서 슬퍼하는 듯하였다. 이를 보고 ㉘부남 태수가 문득 풍운이 생각나 흐느끼며 생각하기를 ‘풍운도 살아 있다면 내가 주었던 장도를 만지면서 저렇듯이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며 자세히 보니 원수의 장도가 풍운에게 채워 주었던 장도와 똑같았다. 이에 마음속으로 너무 놀라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공경을 표하고 원수에게 물었다.

“원수가 차신 장도는 반드시 보검일 듯합니다. 황송하오나 한번 구경하고자 하옵니다.”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오히려 반기면서 장도를 끌러 주었다. ㉙부남 태수가 자세히 보더니, ‘이것은 정녕 자식 풍운의 칼이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원수가 이에 더욱 이상하게 여겨 물어 말하였다.

“태수는 이 칼을 보시고 어찌 슬퍼하며 흐느끼십니까?” 태수가 아뢰어 말하였다.

[B] “황공하오나 하관이 앞뒤의 내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 참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인이신 양 참군의 부친 양 상서께서 대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연왕이 정표로 이 장도를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양 상서가 이 장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양 상서가 이 장도를 양 참군에게 전하였는데, 양 참군은 후사가 없고 따로 전할 데도 없어서 하관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도 이름은 연평검이니 하관이 매우 아꼈던 것입니다. 제가 늦게야 한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비범하였기에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어 절강의 도사에게

[B] 가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열 살 이전에 부모와 이별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자식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는데, 하관은 황명을 받아 가달을 치러 경사로 올라갔고, 처 양 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하관이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오니 천자께서 하관에게 부남 태수를 제수하셨습니다. 이에 부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에 들렀더니 집은 비었고 처는 간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알 수 없어 홀로 부남에 도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원수가 차신 장도를 보니, 문득 자식이 생각나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칼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바로 그 주머니에서 ㉚생년월일시를 써 둔 유서를 내어 태수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불초자 풍운이로소이다.” 그러고는 지극히 애통해하니,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 유서를 받아 보니 과연 자신의 친필이 분명하였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

3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남 태수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부임했다.
 - ② 양 씨는 남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고 나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 ③ 원수가 도적에게 잡혀 있을 때 남자의 부친이 원수를 도적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 ④ 원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주의 왕 상서택에 자신을 의탁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원수가 자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풍운전」은 가족이 헤어졌다가, 주인공이 입신양명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데에 힘입어 가족이 다시 만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사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인물들이 헤어져 각자 겪은 일들, 인물들이 새롭게 맺은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인물들이 겪은 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① [A]에서 모친이 자신이 지은 원수의 옷을 낭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B]를 통해 원수가 그 여인과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D]를 통해 부친이 원수의 관상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어.
-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C]를 통해 한림학사에서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가문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공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어.
- ④ [B], [D]를 통해 원수와 부친의 이별이 두 사람에게 시련을 초래했지만 두 사람에게 조력자들을 만나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C], [D]를 통해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어.

3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들이 연민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표가 되고 있다.

34. ㉠ ~ ㉢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원수가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의 행적을 모친과 남자가 긍정적으로 여겼다.
 - ② ㉡ : 원수의 모친과 남자가 황제와 도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 ③ ㉢ : 원수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도사를 신뢰했다.
 - ④ ㉠ : 부남 태수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 ⑤ ㉢ : 부남 태수가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운송지 덕이 야간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증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A]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상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불들어어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을 쫓아 옹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네 어이 나를 찾아오며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

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또 멀고 먼 강남 길에 어찌 살아 오셨는가?”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나라가 침입하자,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운은 학녹과 전쟁에 참가하고, 순경과 호원도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운다.

그날 밤 백구십 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 왔다. 성운과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광야에 빈 데 없이 가득하였다. 성운이 순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 중에 들어가 적진 장졸을 헤치고 삼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막고 섰는데, 동편으로

뇌성벽력(雷聲霹靂)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旗幟)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주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軍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문득 일원대장이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망 중에 살펴보니 수기(手旗)에 글이 쓰였으며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호원이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호원을 살려 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또 일시에 쓰러지며 일원대장이 들어왔다. 호원이 또 살펴보니 이는 순경이었다. 더욱 반가워하며,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하였다. 성운과 순경이 장수 삼만여 겹을 헤치고 나와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 월성덕이 장대(將臺)에서 보다가 망천탄식(望天歎息)해 말하기를,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陷沒)시키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했다.

이에 공손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운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공손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남은 장수들이 흩어져 있는 군사를 거두어 와서 항복하였다. 성운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예로 대접하니, 모든 적장과 군졸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성운이 또한 유경만을 잡아다가 앞에 꿇리고 죄를 낱낱이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긴 놈으로 간사하게 천자에게 참소(讒訴)하여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

라고 하였다.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은 윤승지 님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하였다.
- ② 주점 사람은 중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 ③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 ④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⑤ 월성덕은 연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협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 ①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진성운과 성희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이 어릴 때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을 잡아 죄를 물은 것을 보니, 국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진성운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이 위협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연향이 숨겨둔 흔적을 진성운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
- ③ 학녹이 진성운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가 된다.
- ④ 떠돌던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된다.
- ⑤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

장 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일색이 저물께 이르러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夢事)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거늘, 촉날의 흥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가만히 ㉡운곡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하고 동정을 살피니, 촉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 거늘, 원수가 재촉하여 촉날의 추격 병을 급습해 죽이고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 매복하니라.

이때 촉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에 이르니,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함성이 진동하며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촉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접전치 아니하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촉날도 또한 가슴을 맞고 외쳐 왈,

“굴막대는 나를 모르난다?”

하되,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고 급습해 죽이니, 촉날의 군사가 십분 위태한지라. 촉날이 견디지 못하여 황망히 남은 군사를 거느려 평구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십여 명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하다가, 운곡에 장 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하여 협로로 들어 반운산 좌편으로 향하여 가더니,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 적장 촉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참사검을 들고 대호 왈,

“촉날 적자(賊子)*야! 간계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피에 너의 군사가 패물하였으니, 무삼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 하난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네 죄를 속(贖)하라.”

말이 끝남에 참사검을 들어 버히려 하니, 촉날이 급히 철궁을 들어 칼을 막다가 오른팔이 맞아 철궁과 함께 떨어지거늘, 다시 칼을 들어 촉날의 머리를 버히며 들고 말을 몰아 적진에 돌입하여 좌우충돌하여 적진 장졸을 풀 버히듯 하니, 선우의 군중(軍中)이 대란하여 향오를 차리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늘, 원수가 크게 외쳐 왈,

“촉날이 이미 죽었으니, 반적 선우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하고 사면으로 짓치다가 ㉣날이 밝기에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선우가 장대에 올라 바라보니, 촉날 명장(明將)을 따라가다가 진중이 대란하며 명진 장졸에게 대패하여 촉날이 명 원수의 손에 죽고 남은 장졸은 흩어져 달아나거늘, 대경실색하여 성주 남문을 열고 군사를 거느려 달아나거늘, 원수가 선우의 달아남을 보고 기병을 거느려 따를새 선우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서 남해에 다다라 배를 타고 교지국으로 달아나거늘, 원수가 제장과 의논 왈,

“이제 선우가 교지로 달아나니 만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리라.”

하고 승첩한 사연을 천자에게 아뢰고, 남해 태수에게 전령하여 선척을 준비하여 타고 선우를 쫓아가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장 원수가 남쪽의 선우와 싸우는 틈을 타 북쪽의 흉노가 중원을 침범해 천자가 금릉으로 피한다. 이때 이대봉이 백운암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금릉으로 와 참전한다.

흉노왕이 장대에 높이 앉아 황제의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대희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뜻밖에 진중이 대란하며 일원 소년 대장이 번개같이 달려들며 한칼로 목특남을 베어 들고 진중에 횡행함을 보고 대경하여 중군장 동돌수로 접전하라 하니, 동돌수가 그에 응하여 말을 타고 나갈새 좌수에 패룡검을 들고 우수에 철퇴를 쥐고 능운마를 채쳐 진중에 달려드니, 사납게 흘겨보고 머리카락이 위로 뻗쳐 소리를 벽력같이 질러 왈,

“네 천하 장군 동돌수를 모르난다?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심은 너를 사로잡아 우리 황제가 통일지공을 이루게 하심이 거늘, 너는 무삼 재주 있관대 천의를 거슬러 혼자 말을 타고 진중에 들어와 감히 충돌하난다? 너의 머리를 버혀 우리 선봉의 원수를 갚으리니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말이 마치지 못하여서 대봉이 청룡도를 들어 동돌수의 패룡검을 두 조각에 내어 진 밖에 던지니, 동돌수가 더욱 분노하여 철퇴를 들어 대봉을 바라고 던지니, 대봉의 눈이 밝은지라 몸을 기울여 피하고 다시 싸워 십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더니, 동돌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깃발을 두루니, 진이 홀연 변하여 팔문 금사진이 되니, 대봉이 진중에 싸여 벗어나지 못할지라. 대봉이 냉소하고 진언을 염하여 후토신장과 기백뇌공*을 부르니, 문득 ㉤음산한 구름이 자욱하며 천지 어둡고 캄캄하고 대풍이 일어나며, 급한 비 크게 오며 뇌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니, 적진 장졸이 황겁하여 능히 향오를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금사진이 변하여 추풍낙엽같이 사방으로 흩어지거늘, 대봉이 정신을 가다듬어 오추마를 채를 치며 청룡도를 높이 들고 남으로 향하여 주작장군을 파하고, 말을 돌리어 북으로 향하여 현무장군을 버히니, 앞의 군사는 뒤의 군사 죽는 줄 모르고, 서편 장수는 동편 장수 죽는 줄 모르더라. 대봉의 칼이 번듯하며 동돌수의 머리를 버혀 칼끝에 꿰어 들고 장대에 달아 크게 외쳐 왈,

“반적 흉노왕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만일 더디면 동돌수와 같이 머리를 버히리라.”

하고 진문 밖에 나와 의기양양하더라. ㉥이윽고 운무가 흩어지며 천지 명랑하거늘, 흉노왕이 군사를 살펴보니 백만지중에 주검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남은 군사가 불과 오 천여 명이라 사방으로 다 도망하는지라. 흉노왕이 대접하여 달아나거늘, 대봉 공자 말을 채쳐 흉노왕을 따라 앵무주에 다다르니 ㉦중천에 있던 해가 거의 서산에 걸리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적자 : 불충한 사람.
* 후토신장과 기백뇌공 : 토지, 바람, 천둥, 번개 등을 관장하는 신들.

[A]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우는 축날이 대패하고 죽자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군.
- ② 장 원수는 선우가 달아나게 되면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군.
- ③ 흉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려 할 때 대몽이 공격할 것을 미리 짐작했군.
- ④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혼자 공격하러 들어온 대몽에 대해 분개했군.
- ⑤ 대몽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흉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군.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② ㉠과 ㉣에서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은 각각 내적 갈등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에서 하늘이 밝아지는 것은 사건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 ⑤ ㉣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임이 ㉣에서 해의 위치가 바뀐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33. ㉠, ㉢에 주목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 원수는 ㉠에 이르러서야 축날의 간계를 간파했지만 ㉢에서 축날과 싸워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 ② 장 원수의 군사들이 ㉠에 있다가 ㉢로 간 것을 축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 ③ 장 원수는 ㉠에서 축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에서 축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 ④ 장 원수는 ㉠로 축날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로 축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 ⑤ 장 원수의 군사들을 축날의 군사들이 ㉠에서 ㉢로 뒤쫓아옴으로써 축날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몽전」에는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과 남자 주인공인 이대몽의 서사가 각각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두 서사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황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과 이대몽이 흉노왕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난다. 두 군담의 서사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어 두 주인공의 대등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장 원수는 ‘세찬 물결’로, 대몽은 ‘진중에 싸’여 위기에 처한 것은 인물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두 군담에 서로 구별되는 요소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② 장 원수가 ‘축날의 머리를 버’히는 것과 대몽이 ‘동돌수의 머리를 버’히는 것은 무용을 떨치는 측면에서 두 인물이 대등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③ 장 원수가 선우에게 ‘크게 외쳐’ 한 말과 대몽이 흉노왕에게 ‘크게 외쳐’ 한 말은 각각 장 원수가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고 대몽이 술법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④ 장 원수에게 패하여 선우가 ‘대경실색하여’ 도망치는 것과 대몽에게 패하여 흉노왕이 ‘대겁하여’ 도망치는 것은 두 군담의 서사 구조가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장 원수는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대몽은 흉노왕과 싸우다가 ‘앵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두 군담이 별개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과연 서번국의 대장 진골대가 급히 군사를 몰아 남주정에 들어가니, 백성이 하나도 없고 성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진골대가 크게 놀라 도로 진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현후가 서번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군사들을 급히 출동시켜 에워싸며 산 위에 올라가 소리쳐 말했다.

“서번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할소냐? 옛날 양평공과 우골대가 다 내 칼에 죽었거늘, 네 맞아 죽고자 하니 어린 강아지가 맹호를 모르는 격이로다. 제 죽은 혼일망정 나를 원망치 말고 새 황제를 원망하여라.”

그리고는 불화살을 재빨리 쏘니, 성 안에 화염이 하늘에 퍼져 가득하여 모두 불길일러라. 적군이 건디지 못하여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데, 또 위왕의 군진을 만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서로 짓밟혀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진골대 탄식하며 말했다.

“위왕은 만고의 영웅이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항복하여 말했다.

“우리 왕이 구태여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새 황제가 시킨 것이니, 바라건대 위왕은 죄잔한 목숨을 살리소서.”

위왕이 말했다.

“서번국과 과인의 나라는 본디 친하여 꺼리고 미워하는 것이 없기로 놓아 보내거니와, 차후로는 아무리 새 황제의 조서가 있더라도 기병할 마음을 먹지 말라.”

그리고는 돌려보내니라.

이때 새 황제의 군대가 구골대의 군대와 합병하여 화음현에 도착하였는데, 백성들이 길에서 울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여 말했다.

“위왕이 서번국에 패하여 거창산에 들어가 백성들을 모아 군사를 삼으니, 저마다 도망하다가 처자식을 잃고서 절로 슬퍼우나이다.”

구골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위왕을 잡으려 거창산으로 군대를 몰아 들어가니, 길이 험하고 수목이 무성하여 행군하기 꽤 어려웠다. 그래도 점점 들어가니, 과연 산 위에 깃발과 창칼들이 무수히 꽂혔고 진중이 고요하여서 크게 고함치며 쳐들어왔지만, 군사가 다 짊으로 만든 ①허수아비였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구골대가 몹시 놀라 어찌할 줄 몰랐는데, 문득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구골대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하여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들어와 죽을 줄을 알았으랴?”

그리고는 죽기로써 불길을 무릅쓰고 산의 어귀를 나서니, 또 좌우에서 함성을 크게 지르며 뒤쫓아 왔다. 구골대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여 투구를 벗고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살기를 빌자, 위왕이 크게 꾸짖고 중곤으로 불기를 30대 쳐서 내치니라. 구골대가 거듭 절하며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돌아가다가 인하여 죽었다. 양국의 대병이 대패하자, 서번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새 황제의 조서를 받고서 망령되이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까운 장수와 군졸만 죽었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랴? 이후로는 위나라 땅을 침범치 못하리로다.”

이때 새 황제는 세 방면의 군대가 대패한 것을 듣고서 크게 놀라 탄식하고 한탄하며 말했다.

“위왕은 과연 천신이로니, 뉘 능히 당할 수 있으랴?”

[중략 줄거리] 새 황제가 위왕 현수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은 화해한다. 이후 현수문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현후가 새 위왕이 된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새 황제의 사자가 이르렀다 하여 새 위왕이 그를 맞이하였는데, 사관이 말했다.

“황상께옵서 위왕의 지방이 좁고 길이 멀을 염려하시어 우선 서천의 한 곳을 환수하라 하였고, 위왕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셔서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함께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나이다.”

그리고는 조서를 들었는데, 새 위왕이 조서를 보고 황궁을 향해 네 번 절하고 의아해 마지않아서 말했다.

“황상의 망극한 은혜가 이처럼 미쳤으니, 어찌 황궁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소?”

그리고서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하니라. 여러 날 만에 황성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수천 군마가 힘차게 달려 나와 새 위왕을 에워싸서 말할 수 없이 절박하거늘, 새 위왕이 크게 놀라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단소를 내어 부니라. 소리가 심히 처량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풀어도 이끄니,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 이는 종실 조충이 본디 외람한 뜻을 두었으나 매양 위왕 부자를 꺼리다가, 이제 비록 현수문이 죽었으나 그의 아들 현후를 시기하여 새 황제에게 헐뜯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다. 이날 가만히 새 위왕 현후를 잡아 없애고자 하다가 갑자기 단소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마음이 풀어진 바가 되었으니, 천도가 무심치 않음을 가히 알지라.

새 위왕이 그 위급한 화를 면하고 바로 궐내에 들어가 새 황제 앞에 엎드리니, 새 황제가 보고 한편으로 반기며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워 말했다.

“경을 차마 잊지 못하여 가까이 두고자 한 것인데, 이제 짐의 몸이 평안치가 않아서 말을 이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도로 용상에 누워 혼절하니, 위급함이 시각에 달려 있었다.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는데, 새 위왕 또한 새 황제의 위급함에 크게 놀랐지만 문득 ①환약을 생각하고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새 황제를 받드는 신하에게 주며 말했다.

“이 약이 비록 좋지 못하나 응당 효험이 있을 듯하니, 갈아서 잡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하느뇨?”

만조백관이 다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혹 다행이라 여기기도 하며 혹 의심을 내기도 하였는데, 곁에 조충이 있다가 이를 보고 생각하였다.

‘만일 황상이 깨어나지 못할진대, 새 위왕을 없애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조짐을 만남이니 어찌 다행치 않으랴!’

그리고는 급히 환약을 받아 시녀로 하여금 갈아서 새 황제에게 먹이게 하였더니, 오래지 않아 호흡이 능히 통하고 또 정신이 썩씩하여져 오히려 전보다 심사가 상쾌해졌다.

- 작자 미상, 「현수문전」 -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장면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천상계와 지상계의 사건을 병치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주성’에서 구골대는 위왕의 군사로부터 크게 패했다.
- ② ‘화음현’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 ③ ‘거창산’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 구골대는 죽음을 맞이했다.
- ④ ‘황성’에서 사관은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새 위왕을 만났다.
- ⑤ ‘궐내’에서 혼절한 새 황제를 보고 만조백관들은 허둥지둥했다.

3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구골대가, ㉡은 새 위왕이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구골대가, ㉡은 새 황제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위왕이 변신한 소재이고, ㉡은 새 황제를 변신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위왕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소재이고, ㉡은 새 위왕의 걱정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⑤ ㉠은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 소재이고, ㉡은 새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이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수문전」은 제후인 주인공들이 대를 걸쳐 황제와 겪는 갈등 관계가 반복되는 군담 소설이다. 이때 황제는 외부 세력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아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영웅적 면모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황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① 조충이 위왕 부자를 꺼려 새 황제에게 혈뜬은 것에서 황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새 위왕이 일광대사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소를 불어 군사들을 흠어지게 한 것에서 영웅적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서번왕이 위왕에게 패해 장수와 군졸을 잃고 탄식하는 것에서 제후가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새 황제가 서번왕에게 군사를 일으키라고 조서를 보냈다는 것에서 황제가 다른 세력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위왕이 새 황제로 인해 공격을 받은 것과 위왕의 아들인 새 위왕이 새 황제를 만나러 가서 위험에 빠진 것에서 제후와 황제의 갈등이 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이때는 ㉠정묘년 정월 십오 일이라.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하례할 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전(年前)에 짐이 조ungs을 보니 인제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니 태자를 위하여 데려다가 짐의 곁에 두고 서동(書童)을 삼아 국사를 익히게 하고자 하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다 묵묵하되 이두병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를 이유 없이 조정에 둬는 잘못된 줄로 아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의 인재를 취함이라.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취하려 하겠는가?”

두병이 다시 아뢰기를,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르더라도 조ungs보다 열 배나 더한 충효의 인제가 백여 인이요, 조ungs 같은 이는 수레에 싣고 말[斗]로 그 양을 헤아릴 정도로 많습니다.”

황제께서 윤희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회답이 없는지라. 승상이 시종대(侍從臺)에 나와 관원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만일 조ungs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으리라.”

하니, 백관이 누군들 겁내지 아니하리오.

이즈음에 왕 부인과 조ungs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못내 두려워하고 응은 분기등등하더라.

천운이 불행하여 황제께서 우연히 건강이 편하지 않으시더니 ㉡열흘이 지나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이 깊어지니,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늘에 빌어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소인배들의 조정이라 회복을 어찌 기대하리오.

㉢정묘년 삼월 삼 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인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 부인 모자는 더욱 망극하더라.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이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의 행동을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사월 사 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하였다.

하루는 관원들이 노소 없이 시종대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좇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지라. ㉤시월 십삼 일은 황제의 생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태자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요한데, 팔 세 태자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대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나라가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냐?”

여러 신하가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A]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태자에게 제위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협정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임금 없이 백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또 다른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엎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조ungs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기른다. 이후, 조ungs은 의병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의 군사를 무

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간다.

이때에 황성 백성들이 조 원수가 온단 말을 듣고 즐겨하여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세지 못할지라. 또 이두병을 잡아 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자칭 천자라 하여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어이 그리 단명하는고? 하늘이 통찰하여 네 죄를 아시고, 무지한 백성들도 네 옥신을 원하거니 착하고 빛나도다. 일월 같은 조 원수를 보니 도탄 중에 든 백성들이 단비를 만나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 노소 장안 백성들아,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원수가 팔십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짓쳐 들어오니 황성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천우 신조로 대송이 회복되도다.”

하고 무수히 하례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기 헤아릴 수 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관 어귀에 조정 백관이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아 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B] “소인 등은 임금을 속였음이라.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했으나 매일 송 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 속이 막혀 한순간인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옵에 범죄 불고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잔명을 보전하여 주옵심을 바라나이다.”

하며 애걸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천한지라.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붙잡아 오라 하시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포승으로 묶어 진중에 풀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네 낫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죄를 생각하니 죽여도 아깝지 않음이라.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뇨?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좌우의 무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빠 아뢰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이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나의 조정의 신하들은 성품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라. 죄를 알고 나의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하니 원수가 더욱 크게 성내어 무사를 호령하여 문초하라 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소리하고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니 두병이 견디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조ungs전(趙雄傳)」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산중으로 피신시켰다.
- ② 관원들은 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황제의 장례를 치렀다.
- ③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고자 했다.
- ④ 조웅은 이두병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잘못을 심문했다.
- ⑤ 이두병은 어린 태자의 즉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사건으로 인해 ㉡ 동안 황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
- ② ㉠과 ㉡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 ㉢의 사건을 통해 화합하게 된다.
- ③ ㉠에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 ④ ㉡ 동안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 ⑤ ㉣의 황제의 죽음 이후, 제위에 대한 논의가 ㉣에 마무리된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B]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물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③ [A]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B]는 과거의 상황을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러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 ① '조웅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조웅의 천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는 모습은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조웅의 등장을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웅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주인공을 대신해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조웅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심문하는 행위는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실현하여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화 상서 왈,

“내 아해는 행여 나를 속이지 말라.”

화 소저 대 왈,

“소녀 어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나 속이리이까. 과연 금일에 경물을 구경하고자 누상에 올랐더니, 우연히 화산 속에 약초 캐는 두 아해를 만나매 일만 가지 기이한 일이 있사와 십여 세 된 여자 약초 캐다가 애원히 통곡하니, 듣는 자로 하여금 비감할지라. 제가 듣고 비감하와 불러와 한번 보매, 실성한 병인이로되 용모 자태와 행동거지 결코 천인이 아닌고로 소회를 여러 번 따져 물은즉, 미친 체하여 세사를 알지 못한 듯하오나 오히려 그 본정이 나타나는지라. 소녀 이에 좌우를 물리치고 잘 타일러 문사온즉 과연 전일 항주 추관 여장의 귀중한 딸이요, 처사 관철의 외손이라. 여 공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청현에 이르렀더니, 간신이 유 상서의 문생이라 하여 편하여 항주 추관을 하였더니, 도입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참화를 만나 혈혈한 어린 여자가 부친의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고자 스스로 제 사랑 집 천비가 되었더니, 용모 태도가 아주 뛰어나기로 제 사랑이 그 미색과 용모를 사랑하여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하니, 달리 벗어날 길이 없는지라. 거짓 미친 체하여 녹발을 홀어 옥 같은 얼굴을 가리고 몸소 약초 캐러 다니며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통곡하니, 그 정사를 살피매 소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이로소이다.”

화 공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왈,

“가히 기특하도다. 내 여아의 어진 마음이어 아름답다.
[A] 그 여자의 신세 가련하도다. 알지 못하겠구나. 그 위인이 어떠하더냐.”

화 소저 대 왈,

“입으로 다 아뢰기 어려우나 제가 비록 지식이 없사와 일찍 눈에 찬 사람을 보지 못하였삽더니, 이 여자가 만일 예스럽고 인품이 범상하오면 어찌 가까이 지내오리까. **현철한 덕성이 용모에 나타나고 추상같은 기질이 당대에 가장 빼어나며,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한 여인이라.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 형제자매 되어 욕됨을 깨닫지 못하오리이까. 열 번 보고 백 번 헤아려도 이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보았고, 여자의 수행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오나 어찌 이 같은 여중 군자와 규중 옥인을 만나 그 법도를 본받지 아니하오리이까. 제 나이 젊으니 즐겨 사제지의를 정치 아니하온지라 부득이 형제지의를 맺고, 소녀는 생일이 여 씨보다 수 월이 더한고로 형이 되매, 관포지교*를 겸하고 또한 천지께 고하였사오니, 소녀가 만일 여 씨를 건지지 못하오면 마침내 세상 영욕을 홀로 참여하지 아니하오려 하오니, 부디 부께서는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화 공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왈,

“내 아해는 진실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이 범상치
[B] 아니하도다. 여 소저 규중 보옥이요, 네 또한 여중 호걸이라 이르리로다.”

화 소저가 예를 갖추어 일어나며 대 왈,

“소녀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아뢰지 못하나이다. 혹 모친이 도우사 반드시 후일 모일 날이 있사오리니, 부께서 친히 보시면 오늘 제 말이 헛되지 않음을 알으시리이다.”

말을 끝내자 여 소저가 쓴 ㉠**작별시**를 받들어 드리며 눈물이 떨어지니, 공이 부인으로 더불어 바삐 받아 보니 필법이 정묘한지라. 광채 유동하여 비단 위에 금수를 드리운 듯하니, 크게 놀라 다시 본즉, 재기 빼어나고 의사 광활하여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이 자기 여아로 더불어 비감에 한층이나 더한 듯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훗날 여 소저는 화 공 부부의 수양딸이 된다.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상회복과 혼약한 후, 화 소저가 천자의 후궁으로 부당하게 간택된다. 이에 화 공이 상소하나 하옥되고 여 소저가 입궐해 천자에게 항변한다.

상이 또 물어 가라사대,

“네 이제 아버지 삼년상을 마쳤거늘,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않아 선왕의 예법을 어기느뇨.”

여 소저 슬피하며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주 왈,

“부모를 위하는 정성은 상하 귀천이 없나니, 신첩이 아버지 참상을 만난 후 몸은 남의 집 종이 되고 장례 물품들을 다만 유모에게 떠나보내니, 한 번도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울지 못하옵고 변변치 못한 제사마저 지내지 못하였사오니,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과 뺏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이 언제나 맺혔사오며, 하물며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사오니, 큰 죄가 몸에 실렸는지라. 어찌 삼년상이 지났다 하고 몸에 화려한 의복을 걸치리꼬. 또 상씨 가문에 빙례를 갖춰 행함은 사세 부득이 화 모와 부녀지의 있을 뿐 아니라 화 소저와 사생을 같이하고자 하늘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오니, 지금 온갖 형벌로 죽이실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 부디 성상은 문무왕의 성덕을 본받으사 소녀가 품은 한을 돌아보옵시고, 천하 태평하고 기후가 순조로움을 상서로 아시고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시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아 만세를 누리리이다.**”

말을 마치고 다시 엎드려 두 번 절하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크게 감동하시고 또한 슬피하사 이에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침을 일컬으시고, 즉시 화 공을 풀어 주시어 복직시키고, 또 전임 항주 추관 여장이 본주에서 칼에 베어 죽었으니, 본도 자사로 하여금 바삐 자세히 조사하여 고하라 하시고, 또 상씨 가문에 친지를 내리셔서 두 소저와의 혼약함을 택일대로 바삐 성례하라 하시니 만조 제신과 백성이 황상의 어진 덕을 일컫고, 두 소저의 의기 충언을 탄복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모르는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숙녀지기」 -

* 관포지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 소저는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그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군.
- ② 화 소저는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군.
- ③ 여 소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에 삼년상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 ④ 여 소저의 말을 듣고 천자는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군.
- ⑤ 천자가 여 소저의 원한을 풀어 주고자 여 소저 부친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군.

4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대화 상대를 안타까워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그에 관한 배려심을 발휘하고 있다.
- ② [A]에서 대화 상대가 겪은 일을 염려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의 사연을 듣고 [B]에서 안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에서 특정 인물을 예찬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⑤ [A]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궁금해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화 상대의 사연을 들은 후 [B]에서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 소저의 성격이 변화한 것에 대한 화 공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 ② 화 공이 여 소저에 대해 품었던 경계심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화 소저가 소개한 여 소저의 인물됨에 대한 화 공의 생각을 강화해 주고 있다.
- ④ 화 소저가 슬퍼하는 연유와 관련하여 화 공이 품었던 의혹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화 공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여 소저의 면모를 제시해 화 공이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4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녀지기」는 여 소저와 화 소저가 서로 상대의 가치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지기’가 되어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이다. 두 주인공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인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고 인(仁), 의(義)를 구현하며 신의를 지키고 있다. 인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겨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타인을 보살핌으로써 구현되고, 의는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함으로써 구현된다. 두 주인공이 효를 바탕으로 인, 의의 덕목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 ① 화 소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말한 데서 그녀가 타인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인의 덕목을 갖춘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② 화 소저가 여 소저의 ‘현철한 덕성’, ‘추상같은 기질’, ‘천고에 드문 정숙하고 유순’함을 말한 데서 그녀가 여 소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지기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③ 화 소저가 ‘제가 어찌 그릇 보아 부모가 주신 몸을 가벼이 하여 지기를 맺으며’라고 말한 데서 그녀가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여 소저가 천자에게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연회를 멀리하면 ‘사방이 생업을 즐기고 국가 반석 같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의를 지향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⑤ 여 소저가 ‘만세’를 위해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하오리니’라고 충언한 데서 그녀가 천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